

요 약

- ▶ 최근 해외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에 경험한 손실의 반복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기경보 기능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본고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사업 잠재 리스크를 탐색하고 입체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 조기경보체계(Risk-EWS) 구축 방안을 제안함.
- ▶ Risk-EWS는 해외사업 리스크 지수(IPRI), 불안정 지수(UI), 민감도 지수(SI), 현황·경보·예측(2WF) 맵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함.
 - 리스크 지수(IPRI)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잠재 리스크 규모를 추정하고 통합하여 산업 차원에서 체감하는 잠재 리스크 규모를 지수화한 것으로 4개의 공종(건축, 토목, 산업설비, 기타), 3개의 권역(Middle East and Africa, Asia Pacific, America/Europe), 4개의 사업 규모(1,000억원 미만, 1,000억~5,000억원, 5,000억~1조원, 1조원 이상)로 세분화됨.
 - 불안정 지수(UI)는 IPRI의 변동 폭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프로젝트 관리 체계의 일관성과 역량을 간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수임.
 - 민감도 지수(SI)는 수행되고 있는 사업이 전체 IPRI에 미치는 영향을 지수화한 것으로 11개 영역(4개 공종, 3개 권역, 4개 사업 규모)으로 세분화되어 특정 시점에서 전체 산업에 미치는 잠재 리스크 규모의 영향도를 계량화함.
 - Risk-EWS에 탑재된 현황·경보·예측(2WF) 맵은 사업 진행 현황, 잠재 리스크 증가에 대한 조기 경보, 향후 사업 성과 추이에 대한 전망을 시각적으로 제공함.
- ▶ Risk-EWS 적용에 의한 2015년 12월 전망을 살펴보면, 2015년에 준공이 예정된 사업들의 총 도급 규모를 감안할 때 리스크 지수(IPRI)와 불안정 지수(UI)는 당분간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중동 및 아프리카(MENA) 권역에 1조원 이상의 산업설비 사업의 잠재 리스크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발주처의 재정 악화, 지속적 유가 하락, 공사 대금 지연 등의 요인들이 동시에 발생한 것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공종별, 권역별, 규모별 사업의 민감도 지수(SI)를 살펴본 결과, 산업설비 사업이 약 72%, MENA 권역이 55.2%, 1조원 이상 사업이 38.3%의 민감도 지수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됨. 이는 집중 관리 대상 공종, 권역(국가 포함), 규모, 기업에 대한 사전적 알람(Alarm)을 제공하면서 정부 차원의 금융 정책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사업의 진도(Progress) 실적 기반의 현황·경보·예측(2WF) 맵을 분석한 결과, 사업 기간의 50% 이상을 소진했지만, 실적은 30% 이하인 사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들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손실의 현실화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임.
- ▶ 본 연구에서 제안된 해외사업 잠재 리스크 조기경보체계(Risk-EWS)는 산업 차원의 사전적 모니터링 기능과 기업의 경영 전략 및 정부의 금융 정책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